

베네수엘라, 파업사태 격화로 정국불안 고조

(2002. 12. 16)

베네수엘라 반정부 노동조합에 의한 총파업이 1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및 OAS(범미주기구)의 중재에도 불구하고, 친차베스측과 반정부세력간에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, 내란 혹은 제 2의 쿠데타 발생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.

□ 사태 발생의 배경

- 이번 파업은 금년 들어 4번째 총 파업으로 반정부 세력이 기대를 걸었던 차베스에 대한 일련의 탄핵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자, 반정부 세력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시작됨.
- 그동안 반정부 세력은 유혈 쿠데타가 발생한 4월 11일을 기념하여, 매달 11일을 반정부 시위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왔음.
- 지속적인 투쟁에 의해 200만명의 국민청원으로 국가선거위원회가 2003년 2월 재신임 투표를 결정하였으나,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음.

□ 진행 경과

- 파업 돌입 이후 주요 언론기관 및 국영석유회사(PDVSA) 등이 파업에 동조하고 있음. 거리 시위과정에서 친차베스 세력과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, 14일에는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대규모인 100만명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음.
- 그러나 반정부 세력의 요구에 대한 차베스측의 입장은 단호함. 차베스는 임기중 조기 대선 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, 앙헬 부통령은 파업을 빙자한 거리 시위를 쿠데타 기도 음모로 규정하고, 베네수엘라 2002년 4월 11일의 유혈사태를 다시 맞을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.

□ 향후 전망

- 세계 5위의 산유국가이자 미국에 대한 4번째 원유공급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정국안정을 위해 미국 및 OAS(범미주기구) 등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사태해결의 관건인 조기 대선 실시를 차베스측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음.
- 베네수엘라 사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급격히 악화될 경우 국제유가의 상승, 인근 국가인 콜롬비아에 대한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역내 불안정 등이 우려되고 있음.
- 한편, 국제신용도 평가기관인 S&P는 베네수엘라의 정치혼란과 경제마비를 이유로 동국의 장기외화표시 채권등급을 기존 B-에서 CCC+로 하향 조정하였음.

문의처 : 책임조사역 배상욱 subae@koreaexim.go.kr